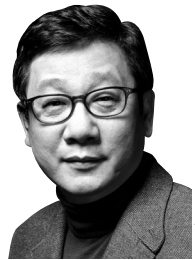


불자 세상보기

획일화된 사관 가진 국가에 미래 없다



서인원
진선여고수석교사

설마 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2015년 10월 12일을 기해 확정되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2011년 검정 교과서로 바뀐 지 6년 만에 국정으로 회귀하게 되었다. 이는 1973년 4월 20일 박정희 정부가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을 발표한 지 42년만의 일이다. 또한 2014년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서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이후 1년 8개월 만의 일이다. 교육부는 국정화 추진 논리로 '사실 오류·편향성 수정', '다양성의 확보',

'질 관리 체계 구축', '헌법 가치 수호'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행 8종 교과서가 이명박 정부시기에 교육부의 교육과정과 지필 기준대로 서술돼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집필진 의사에 반해 교육부의 명령대로 수정까지 해서 일선 학교에 배포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오류투성이고 편향성이 있다면 지금까지 교육부가 이를 방조한 것으로 봐야 할 수 없다.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질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검정을 맡아온 기구가 국사편찬위원회였으며, 사실상 국사편찬위원회는 역사 연구 및 자료 수집 기관의 성격이지, 역사교육을 담당하는 기구가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에 국정화에 찬성하는 여당 역시 자기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내 연구기관 여의도연구원이 2013년 편낸 정책 보고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맞지 않고, 특정 정권의 치적을 미화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국정화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하물며, 국정 교과서 집필진의 근현대사 부분에는 역사

가뿐만이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및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하도록 한다는 부분에서는 말을 잃게 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과목 교과서에서는 그런 집필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독 한국사 교과서만은 역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저술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대체 아리송하다. 기존의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이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이념 논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과서는 학문적 업적을 바탕으로 보편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서술되는 것이 근본이다. 정부나 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이념 논쟁으로 몰아 붙여 국정화를 실시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은 다시 1973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것이다. 불교계의 입장에서 한국사 및 역사 교과서 저술 시에 늘 생기는 오류 내용과 사실 왜곡 등의 문제에 있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여러 종의 검정 교과서의 경우에는 오류가 있더라도 다른 교과서와 비교 분석이 가능했으나, 국정 교과서에서는 오류나 사실 왜곡이 생길 경

우 검정 교과서와는 달리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전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한 교과서로만 배우기 때문이다. 불교계의 요청으로 수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잘 배운 학생들에게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불교계에서는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던지 검정화 되던지 간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역사는 결코 하나의 시각으로만 기술할 수는 없다. 봉당 정치로 정쟁이 무척 심했던 조선 시대의 <조선왕조실록> 저술 과정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남인이 작성한 <현종실록>을 마땅치 않게 생각한 서인은 경신환국으로 다시 권력을 잡고 <현종개수실록>을 썼다. 그러나 정쟁이 심했던 이 시기에도 서인들은 후대가 참고하고 판단하라고 원래의 <현종실록>은 파괴하지 않았다. 조성들도 저지르지 않았던 역사에 대한 결례를 현 정부에서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 번 잘못된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社說

화합의 비구니 승가로 이끌길

제11대 전국비구니회장에 육문 스님(군위 법주사 주지)이 당선됐다. 10월 12일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열린 선거에서는 육문 스님이 923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이름을 올렸다. 육문 스님의 당선으로 전국비구니회를 둘러싸고 이뤄졌던 1년여 간의 내홍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육문 스님은 변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육문 스님이 제시한 공약은 △일하는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승단의 위상과 권의 향상 △비구니 스님의 노후복지 증진 △비구니 스님 인재 육성에 기여 △청정한 수행자의 자세로 승가 화합 등의 5대 지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비구니회의 회칙 개정이다. "임의적이고 애매한 회칙 조항을 명쾌하게 개정해 운영위원 구성이나 총회회의 선출과 자격요건 등 조직 구성과 운영 전반에 합리성을 더하겠다"는 게 육문 스님의 공약 사항이다.

또한 집행부 조직 개편을 비롯해 대중 여론을 반영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비구니회 재정 증대, 비구니회관 효율적 활용 방안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구니 스님이 노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권역별 비구니 노후 수행도량 설치 △지회별 전담 의료기관 지정 △비구니 스님을 위한 다비장 건립 등을 세부 공약으로 내놨다.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화합이다. 지난해 비구니 승가는 내부 갈등으로 많은 상쟁을 입었다. 새로운 회장 체제가 출범한 만큼 갈등을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화합의 길에 나서야 한다. 신임 회장 육문 스님도 '화합 승가'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

학인 역량 이끌 경연대회 확대돼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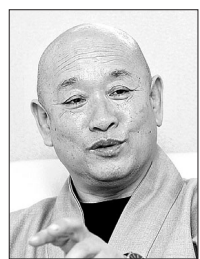
학인 스님들의 외국어 실력에 놀라고 회색 장삼이 숨겨진 끼에 다시 한번 놀랐다. 조계종 교육원이 10월 14일 개최한 '제1회 학인 외국어 스피치 대회' 현장을 접하고 나았다. 경쾌한 비트박스와 함께 랩을 구사하고, 네덜란드에서 안무 연출을 전공한 학인 스님을 주도로 27명의 학인 스님들이 일사분란하게 마음을 하고 합창을 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외국어는 기본적인 실력이다. 이 같은 학인 스님들의 재기 넘치는 모습은 지난해 처음 열린 열불 경연대회에서도 보여줬다. 특히 창작 열불 분야에서 젊은이들 취향의 현대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실제 <반야심경>을 랩 형식으로 열불한 스님은 해외 뉴스에서도 소개되기도 했다. 2030세대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관심이 없다. 올해 Gallup 조사에서도 종교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특히 불교 인구 감소의

예후는 좋지 않다. 불교의 경우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고령화 추세에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불교는 향후 종교인구 확장에 있어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젊은 세대에 대한 포교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같은 경연대회는 학인 스님들의 실력을 탐마하는 교육의 기회이자 새로운 포교 콘텐츠 발굴의 장이기도 하다. 이번 외국어 스피치 대회에서도 108배와 명상, 미고사(ITI),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를 재미있게 엮어낸 'H3 비타린' 강연 등 포교 콘텐츠로 연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학인 스님들의 젊은 에너지는 미래 한국불교를 변화시킬 원동력이다. 이를 쏟아낼 수 있는 확대된 경연대회가 필요하다.

발언대
신임 비구니회 회장에 바란다

전국비구니회는 10월 12일 오후 1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으로 육문 스님을 선출했다. 육문 스님의 회장 당선으로 그간 전국비구니회의 내용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부대중에게 신임 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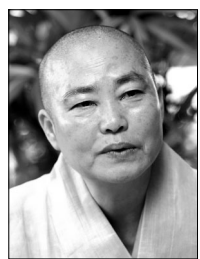
비구니 승가 화합이 최우선



지현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10월 12일 1000여 비구니 스님들이 모여 진행된 선거에서 공정하고 당당하게 육문 스님이 제11대 전국비구니회 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와 열린비구니모임은 회칙 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이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된 만큼 화합과 이해의 정신으로 서로를 보듬고 비구니 승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육문 스님은 비구니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전국비구니회 임의단체 지위 탈피 △비구니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법령 개정 △비구니 역량 발휘 지원 △비구니 원로위원회 구성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 이전에도 비구니 교구(총립) 지정과 중앙총회의석 확대 등의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 현재 비구니 스님들의 숫자에 비하면 중앙총회의석 등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도 1994년 개혁 이후 중앙총무기관과 중앙총회, 교구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비구니 교구(총립)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미래의 과제로 놓고 종단과 끊임없이 대화해 나갔으면 한다.

비구니회 회칙 개정 우선돼야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전국 1000여 명의 비구니가 단순히 비구니회장을 뽑는 투표를 하기 위하여 전국비구니회관에 집결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비로소 전국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1년간의 열린비구니 모임의 공로로 돌리고 싶다. 먼저 전국비구니회의 회칙을 제·개정해서 인맥이나 한 두 사람의 편견이 아니라 회칙에 의해서 공의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전국에 대표성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구니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비구니회에서 공의로 결정된 것이 바로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행위와 직결될 수 있도록 비구니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회장 스님은 미래의 비구니승가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기를 바란다. 인맥이 아닌 참신하고 능력 있는 비구니를 등용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일, 출가정신을 고취시켜서 신심 있는 비구니 승가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일, 비구니 출가자 부족 문제는 세계를 대상으로 출가자를 모집하여 한국의 아름다운 비구니승가를 세계에 전하고, 동시에 세계 비구니승가에 기여하는 보다 큰 사업을 시작해주시길 요청한다.

비구니 위상 혁신 기대한다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신임 비구니 회장 육문 스님, 거룩한 부처님 전에 청정한 믿음의 신뢰 가득한 스님, 절대적인 힘을 실은 전국비구니 회장으로 우뚝 일어서신 스님께 불교 여성개발원 회원들은 축하의 메시지와 지지를 보낸다. 이미 한국 비구니 스님들을 발췌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그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는 비구니 스님들이 교육, 포교, 복지, 사회 실천 등 각 분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결과물들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국비구니회나 교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컸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린비구니회가 발족된 이후 전국 비구니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의를 모아 그 집중된 힘으로 이번 선거를 원만하게 회향하게 됐다. 우리 우바이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전국비구니회의 변화를 기뻐하고 있다. 부디 승가의 이부중으로서 비구니 승가의 당당한 모습을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회사홈페이지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실시간 뉴스 홈페이지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홈페이지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마음의정원 {랄랄라 진관사}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뽁뽁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법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투데이>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던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트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 얀트라
얀트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트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안트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명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탄트라 상징으로 안트라라 의례의 과정과 의례를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안트라 의례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안트라라 의례의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안트라라 관련된다. 저자는 안트라라 의례의 후속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안트라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안트라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옥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 중 20,000원 / 하 27,000원 | 세트 전 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